



국 내 소 식

전기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통신부는 최근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사업을 한전이 수행하도록 하고, 동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안 제54조의 3~9)을 강구하고 있다.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할 사항에 수요관리, 기술개발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전기사업자는 연도별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연구 개발사업에 투자 권고(안 제3조, 제3조의 2)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저(水低)에 부실한 전선로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보호구역 내에서 어로작업 등의 행위를 금지(안 제40조의 2~3)하고 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비용을 정부 또는 일반 전기사업자가 부담(안 제49조)하도록 했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기간을 삭제하여 신고서 수리 즉시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재선임할 경우 재선임기간을 해임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안 제32조, 제45조)하고 각종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제66조~73조)했다.

민간단체도 자격증 발급 예정

정부는 최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3개법의 시안을 마련, 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키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를 정착시켜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도록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에서만 관리하던 각종 자격이 일정한 자격평가를 받은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서도 발급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기관 형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신설되어 그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추진하던 업무의 일부가 이곳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배전부분 비전 21

... 업무효율화 방향 제시

21세기를 맞이하는 배전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키 위한 「한전 배전비전 21」이 한전과 전기조합, 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안보 생활연수원에서 이해수 한전 판매사업단장과 관련 부서 간부, 사업소 연구과제 발표자와 배전부장, 전기공사협회·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업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제시, 논의됐다.

이해수 한전 판매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원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고신뢰도의 선로 건설과 배전기 자재 품질 향상, 공사시공 품질 개선을 통해 우수 품질의 배전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선 배전업무 효율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비전이 제시됐다.

'96 에너지전시회 성료(盛了)

국내 유일의 에너지관련 종합전시회인 「'96 에너지 전시회」가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어 국내외 에너지 절약 우수기기가 선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이기성)이 주관하고 울



해로 21년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독일의 오스탈을 포함 해외 14개국 30개업체를 비롯 신광기업, 기인시스템 등 국내외에서 총 1백6개 업체가 참가, 에너지절약 우수기기의 비교전시회를 통한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회는 태양열 등 미래에너지 이용기기 및 재활용기기 등이 출품됐고, 고효율 조명 정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집단에너지 사업내용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전기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에너지기술관, 에너지절약관 등 에너지 분야별로 마련된 공익홍보관에서 각 에너지별 특성과 안전관리 요령 및 해외절약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업체에서 참여하는 에너지기자재관은 분야에 따라 환경, 대체에너지관, 효율등급, 조명관, 가스용품관, 옥외관 등으로 꾸며져 태양열 이용기기, 조명기기, 자원재활용 기기 등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력산업기술기준 제정공포

전력산업기술기준이 지난 9월 5일 공포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산업분야에 국내 기술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은 대한전기협회(회장 : 이종훈)가 주관,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 1월 화력발전소 건설에 적용하기 위한 통산부 고시의 개정 공포에 이어 이번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용하기 위한 과기처 고시가 제정 공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의 기술기준에 의존해 오던 전력기준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됨으로써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해 외 소 식

고성능 모터운전장치

미국 알렌브레들러사는 최근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킨 모터운전장치를 개발, 첫선을 보였다.

이 교류모터운전장치는 기존 제품보다 35%나 크기를 줄였으며 그 성능도 탁월하다.

이 제품은 7.5마력에서 10마력까지 사용 가능하다. 크기는 세로 13.78인치, 가로 10.24인치, 옆면의 폭이 8.35인치이다.

쾌속점등, 밝기 뛰어난 형광램프

미국 오슬람 살마니아사에서는 기존 조명보다 밝기가 뛰어나고 점등이 빠른 콤팩트 형광램프를 개발했다.

이 램프는 15, 20, 23W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할로겐 조명과 비슷한 선명도, 밝기 등을 지녔다.

세개의 U자형 관으로 디자인된 이 형광램프의 사용수명은 약 1만hrs이다.

다기능·다출력 전력측정기

미국 AEMC사는 최근 전류·전압·전력·무효전력·유효전력·역률·주파수 등 모두 7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전력 측정기(모델명 : 3910)를 시판했다.

이 기기는 특히 피크값 측정기능이 있어 전류·전압·전력의 피크값을 손쉽게 알 수 있게끔 제작됐다.

또한 개개의 피크값 측정에도 관련 피크값이 함께 출력되며, 한번 측정으로 4가지의 측정값까지 알 수 있어 선로의 전류·전압·전력·주파수 측정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하이테스터

일본 히오키전기(주)는 UPS 등에 사용되는 납축전기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소형 2차 전지, 각각의 열화상태를 순시 판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인 배터리 하이테스터 「3550」, 「3555」를 발매하였다.

「3550」은 UPS의 백업 배터리의 메인터넌스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UPS를 정지하지 않고 배터리를 측정할 수 있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전



을 걱정하지 않고 배터리의 열화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3555」는 배터리의 열화상태를 가게에서 측정하여 고장원인이 배터리인가 본체인가를 간단히 판정할 수 있다.

빌딩 원격관리 서비스 시스템

일본 미쓰비시전기(주) 등 3사가 공동으로 소규모 빌딩에서의 설비제어·점검 등의 자동화를 실현한 미쓰비시 빌딩 원격관리 서비스 시스템 「멜 센트리 F형」을 개발 발매하였다.

「F형」은 빌딩의 규모나 용도, 관리형태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을 세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주장치에는 필요한 기능 마다에 추가 기판을 증설하는 「기관 증설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것으로 설비감시·방재감시부터 방법감시·설비제어·자동점검·열쇠관리까지 주장치의 교체없이 확장할 수 있다.

회 원 (사) 소 식

한국전기학원, 장학금 전달식

한국전기학원(원장: 오철균)은 지난 9월 16일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에서 이 학교 전기공학과 2년 김경수군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인 2백30만6천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3년동안 홍익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전기학원은 이로써 이 기간동안 모두 1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한국전기학원은 전기기사 1·2급, 전기공사기사 1·2급 국가기술자격검정 95년도 출제문제집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철균 한국전기학원장은 「오늘과 같은 행사는 결코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같이 공감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졌다」고 말하고 「홍익대와 우리 학원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우리나라 전기계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

했다.

전우문화사, 「전동력 설비의 절전기술」 신간 발간

에너지절약의 비법을 담고 있는 「전동력 설비의 절전기술」이 최근 전우문화사에서 발간됐다.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발간된 이 책은 전동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절전방법을 기술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전기 총사용량에 대한 동력의 비율은 일반적인 생산공장에서 약 70~80%, 냉·난방용 전력을 이용하는 상점이나 사무실에서는 약 50% 이상을 차지, 전동력설비의 에너지절약은 전기 에너지절약의 기초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동력이 이용되는 범위는 컨베이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을 비롯해 펌프, 팬, 압축기, 분리기 등 생활전반에 걸쳐있으므로 전동력설비의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막대한 양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절전형 전동기의 채택에 대한 검토」, 「고효율 전동기와 효과적인 사용법」, 「저감토크부하에 맞는 전동기」, 「손실계산과 에너지 사용합리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전동력 설비의 절전기술」은 월간전기 편집부에서 역·편하였고, 고려대 박귀태 교수가 감수하였으며 가격은 1만원이다.

호서전산전문학교 이전안내

- 이전일자: 1996년 7월 31일
- 이전주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1
- 전화번호: (02)3662-9211(대표)

축하드립니다

- ◎ 강명식 부회장 대전산업대학교 정년퇴임('96. 8. 31)
- ◎ 서울북동지부 최흥성회원 장녀 결혼('96. 9. 21)